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10일 순창군을 방문했다. 이날 북촌 제철창고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등과 겨울철 제철대책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같은 날 오후, 시군 연두방문 일환으로 고창군청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심덕섭 군수 등 관계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순창·고창 발전에 힘 보태 것”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순창·고창

순창서 도민과의 대화 대신 현장 애로사항 청취

고창에서는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를 주제로 시·군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순창군과 고창군을 찾았다.

먼저, 이날 오전 순창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는 당초 이날 향토회관에서 순창군민과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최근 도내 최고 55cm의 폭설이 내린 북쪽면을 찾아 주민안전대책, 제설대책, 어르신들 안부확인 등을 살피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북촌면 제철창고를 방문해서는 순창군의 겨울철 제설 대책 현황을 보고받고 연일 이어지는 폭설에도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 북촌, 쌍치, 구립면 등 주변 지역에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제철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건립된 이곳 제철

창고는 김 지사의 특별한 배려로 3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군비포함 총사업비 8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겨울 폭설로 인한 순창군민들의 안전에 북돋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방문한 폭설현장에서 하우스 농가를 방문한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최대 63cm의 폭설로 400여동이 무너진 하우스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순창군이 지난 2023년부터 하우스마다 지주대를 설치해 폭설피해를 예방한 결과 올해 같은 반복된 폭설에 별다른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직접 보고 들으며 사전예방과 전략적 대

비가 얼마나 이번 폭설과 같은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지 피부로 느끼는 기회가 됐다.

북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어진 군정 업무보고에서는 순창군의 주요 현안과 건의를 듣고 당부사항을 전달하며 전북도가 지향하는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순창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도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도전과제인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도의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순창군민과 공유하는 등 전북유치를 향한 의지도 다졌다.

이날 오후 고창을 방문한 김 지사는 먼저, 고창군 간부공무원들을 만나 고창군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핵심 비전을 밝혔고 고창군의 핵심 사업과 현안문제 등을 경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고창군민 350여명을 만나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 초지일관'을 주제로 군민 앞에서 도정 운영 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앞으로의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나들목 공영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도 796, 734, 733호선의 제4차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고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군민과의 만남에서는 2월 말 발표를 앞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의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고창군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를 포함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화, 역사,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매력적인 도시다"며 "서해안 철도와 용평리조트 종합테마파크 조성 등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써 지속적인 미래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 발전을 위한 민생 청취를 위해 고창군을 방문해 주신 김관영 지사께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의 비전에 고창군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을사년 첫 회기

오늘부터 21일까지  
임시회 열고 의정 돌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1일 2025년 첫 회기인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올해 전북자치도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120일)의 회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이 새해 설계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국립수리유신박물관 건립 촉구 건의안 △법치주의 근간 훼손한 법원 폭동사태 규탄 및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 촉구 결의안 △각계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 보장된 2기 탄핵위 구성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 소관 부서로부터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도 방문한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0건, 결의안 2건, 동의안 2건 등 각종 안건은 1차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제41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투자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총 1,0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기금 14개 사업에는 193억원, 시군 기금 50개 사업에는 826억원이 지원된다.

대상 지역은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 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총 1019억원 투입

전북자치도, 인구감소 대응 일환... 도내 인구감소 지역 대상

10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인 익산시이다.

2025년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3개 전략 14개 사업이다.

3대 전략 분야는 △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함께 살고

싶은 전북 조성 △일자리 창출 및 체류유연 조성으로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 조성 △교육·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및 지역활력 제고로 함께 행복한 전북 조성이다.

첫 번째는 임신·출산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이다. 도는 116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도민의 지역 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출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및 체류유연 조성이다. 도는 43억원을 투입해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농

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 및 사회 서비스 수준 향상이다. 34억원을 투입해 전북형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3개시군(남원시, 김제시, 부안군) 기금과 연계하여 은퇴자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통합 지

원하는 복합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연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만, 발을 내딛어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감소의 시간을 되돌리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5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